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이는 누구인가?

-누가복음 16장 8절의 퀴리오스 번역에 대한 고찰-

민경식*

1. 들어가는 글

누가복음 16장 1절 이하에 보도되는 소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매우 다양한 해석의 역사를 보여준다.¹⁾ 비유의 알레고리적 해석에 중지부를 찍고 비유 해석의 새로운 지평을 연 율리히(A. Jülicher)는 이 비유가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평가하였는데,²⁾ 이러한 평가는 오늘날까지 유효하다.³⁾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 연세대학교 강사, 신약학

- 1) 우선 초대교부들의 알레고리적 해석으로부터 이어진 해석의 역사에 대해서는 F. Bovon, *Das Evangelium nach Lukas(Lk 15:1-19:27)*, EKK III / 3 (Neukirchener-Verlag: Neukirchener Verlag, 2001), 82-85를 보라. 20세기 말까지 오늘날의 해석 역사에 대한 부분은 D. J. Ireland, “A History of Recent Interpretation of the Parable of the Unjust Steward(Luke 16:1-13),” *WTJ* 51 (1989), 293-318을 보라. 또한 최갑중, 『예수님의 비유: 본문, 해설 그리고 설교/적용』 (서울: 이레서원, 2001), 233-243을 보라. 이 외에도 그린(M. D. Greene)은 이 비유에 대한 최근 학자들의 논의를 잘 요약하고 비판하였다. M. D. Greene, “The Parable of the Unjust Steward as Question and Challenge,” *ExpTim* 112 (2000), 82-87.
- 2) A. Jülicher, *Die Gleichnisreden Jesu* (Freiburg i. B: J. C. B. Mohr, 1899), 495. 그는 이 비유를 “*crux interpretum*”이라고 하였다.
- 3) 이러한 견해는 최근까지도 유효하다. 많은 학자들은 이 비유를 소개하면서 이 비유가 예수의 비유들 가운데 가장 해석하기 어렵고 논란이 많은 비유라고 평가한다. 대표적으로 J. S. Kloppenborg, “The Dishonored Master

은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음으로써(8절) 불의한 일이 마치 본 받아야 할 모범으로 제시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다. 이 비유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물음은 다양하며, 그 물음에 대한 대답 또한 다양하다. 비유의 범위가 7절까지만가,⁴⁾ 아니면 8절 전반절까지만가?⁵⁾ 이 비유에 등장하는 청지기가 8절에서

(Luke 16:1-8a),” *Bib* 70 (1989), 474. 그에 따르면, 약 100년 전 예수의 비유에 대한 율리히(A. Jülicher)의 기념비적인 연구 이후, 이 비유가 해석하기 가장 어렵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문제 하나도 합의에 도달한 것이 없다고 한다. 또한 M. A. Beavis, “Ancient Slavery as an Interpretive Context for the New Testament Servant Parable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Unjust Steward (Luke 16:1-8),” *JBL* 111 (1992), 44; W. R. Herzog, *Parables as Subversive Speech: Jesus as Pedagogue of the Oppressed*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4), 233을 보라. 블롬버그(C. L. Blomberg)도 예수의 모든 비유들 가운데 이 비유가 가장 어려운 퍼즐과 같으며, 학자들이 가장 많이 논한 비유라고 하였다. C. L. Blomberg, *Preaching the Parables: From Responsible Interpretation to Powerful Proclamati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4), 83. 엘리스(S. A. Ellisen)은 이 비유에 대한 흥미로운 통계를 제시한다. 월렌 키신저(W. Kissinger)를 인용하면서, 36가지나 되는 서로 다른 해석이 있다고 소개하며, 소위 ‘탕자의 비유’ 다음으로 많은 참고문헌이 있다고 밝힌다. S. A. Ellisen, *Parables in the Eye of the Storm: Christ’s Response in the Face of Conflict* (Grand Rapids: Kregel, 2001), 183-184. 최근에 펠리그리니(S. Pelligrini) 역시 이 비유의 어려움을 잘 설명하고 있다. S. Pelligrini, “Ein ‘ungetreuer’ οἰκονόμος (Lk 16,1-9)? Ein Blick in die Zeitgeschichte Jesu,” *BZ* 48 (2004), 162-163. 이 비유의 해석이 어렵다는 사실은 이 비유가 예수에게로까지 소급될 수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W. Wiefel, *Das Evangelium nach Lukas*, ThHK 3 (Berlin: Evangelische Verlagsanstalt, 1988), 291을 보라.

4) J. Jeremias, *Die Gleichnisse Jesu*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47, 1962), 42; C. H. Dodd, *The Parables of the Kingdom*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1), 17; W. Wiefel, *Das Evangelium nach Lukas* (1988), 290, 293-294; J. D. Crossan, *In Parables: The Challenge of the Historical Jesus* (Sonoma: Polebridge, 1992), 106-107; L. Schottroff, *The Parables of Jesu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6), 157.

받는 칭찬이 혹시 반어적 표현은 아닌가?⁶⁾ 칭찬을 받았다면, 그의

-
- 5) 대다수의 학자들은 8절 전반절까지를 비유에 속하는 부분으로 보는 것을 선호하는데,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학자들이 있다. D. O. Via, *The Parables: Their Literary and Existential Dimens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7), 155-157, 161; L. J. Topel, "On the Injustice of the Unjust Steward," *CBQ* 37 (1975), 217-218; K. E. Bailey, *Poet and Peasant and Through Peasant Eyes. A Literary-Cultural Approach to the Parables in Luke*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83), 95; J.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X-XXIV)*,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85), 1096-1097; J. R. Donahue, *The Gospel in Parabl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8), 162-163; B. B. Scott, *Hear Then the Parable: A Commentary on the Parables of Jesu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9), 258; D. M. Parrott, "The Dishonest Steward (Luke 16:1-8a) and Luke's Special Parable Collection," *NTS* 37 (1991), 502, 513; H. J. B. Combrink, "A Social-scientific Perspective on the Parable of the 'Unjust' Steward (Lk 16:1-8a)," *Neot* 30 (1996), 290-292; R. Q. Ford, *The Parables of Jesus: Recovering the Art of Listening*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7), 11-12; A. Hultgren, *The Parable of Jesus: A Commentary*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2000), 148; F. Bovon, *Das Evangelium nach Lukas (Lk 15:1-19:27)* (2001), 72-73; 최갑중, 『예수님의 비유: 본문, 해설 그리고 설교/적용』, 244-245. 물론 간헐적으로 8절 끝까지, 또는 9절까지, 또는 13절까지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으나, 폭넓은 지지를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8절 후반절을 비유에 포함되는 부분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8절 이후까지 예수의 비유가 계속된다고 보는 견해들은 모두 8절 전반절의 퀴리오스가 비유의 주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8절 전반절의 정체를 규명하려는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8절 전반절이 비유에 포함되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8절 끝까지, 또는 9절까지, 또는 13절까지 비유가 계속 된다는 주장들을 따로 언급하지는 않는다.
- 6) 플레처(D. R. Fletcher)는 청지기가 듣는 칭찬이 사실은 역설적인 표현('교활한')이며, 예수는 불의한 청지기를 부정적인 모델로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즉, 그의 행동이 교활하였으며, 이 비유를 듣는 청자들은 교활한 청지기로 대표되는 '세상의 자녀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다. D. R. Fletcher, "The Riddle of the Unjust Steward: Is Irony the Key?" *JBL* 82 (1963), 23-24; 슈바르츠(Günther Schwarz)도 비슷한 해석을 제시한다. G. Schwarz, "'...lobte den betrügerischen Verwalter'?" (Lukas 16:8a)" *BZ* 18

행동(5-7절)이 윤리적이었기 때문인가?⁷⁾ 아니면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그의 결단력이 돋보여서인가?⁸⁾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질

(1974), 94-95. 여기서 그는 예수의 비유가 아람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될 때, ‘칭찬하다’와 ‘저주하다’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ἰσχυρῶς)가 원래는 ‘저주하다’로 번역되었어야 하는데, ‘칭찬하다’로 잘못 번역되었다고 주장한다. ‘불의한 청지기를 저주하였다.’가 올바른 해석이라는 것이다. 또한 메르켈박흐(R. Merkelbach)의 해석도 독창적이다. R. Merkelbach, “Über das Gleichnis von ungerechten Haushalter (Lukas 16,1-13),” *VigCbr* 33 (1979), 180-181, 특히 181. 여기서 그는 8절이 긍정적 의미를 드러내는 평서문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의문문이라고 주장한다. “그가 약삭빠르게 처신했다고 해서 과연 칭찬하였겠느냐?” 패럿(D. M. Parrot)도 8절의 칭찬을 의문문으로 해석하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며(513-514), 청지기를 부정적인 모델로 해석한다. 이 비유는 원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청지기처럼 회개하지 않고 알뜰한 피에 의지하면 결국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D. M. Parrot, “The Dishonest Steward (Luke 16:1-8a) and Luke’s Special Parable Collection,” (1991), 499, 513-515; 또한 L. Schottroff, *The Parables of Jesus* (2006), 159를 보라.

- 7) 테렛(J. D. M. Derrett)은 청지기의 행위를 하나님의 법(토라)에 위배되는 지나친 고리(高利)를 돌려주는 윤리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Fresh Light on St. Luke’s XVI: The Parable of the Unjust Steward,” *NTS* 7 (1960-1961), 198-219, 특히 204-209, 216-217; 피츠마이어(J. Fitzmyer)는 청지기가 자신의 몫인 수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이해한다.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1985), 1097-1098; 롱네커(R. N. Longenecker)는 청지기가 불법적인 이자를 최소한 것은 하나님께 충실한 행위로서, 착취라는 경제의 본질적인 남용에 도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The Challenge of Jesus’ Parables* (Grand Rapids: Wm. B. Eerdmans, 2000), 226-227; 키스테마커(S. J. Kistemaker) 역시 청지기의 탕감 행위가 지나치게 비싼 이자를 면제해주는 자비로운 행위로 이해한다. S. J. Kistemaker, *The Parables: Understanding the Stories Jesus Told* (Grand Rapids: Baker Books, 2002), 189-191; 임인호 (2004), “누가복음서의 경제신학,” 「신학논단」 11 (2004), 285-290. 그는 나누어 주는 행위 자체가 선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 8) 이 비유의 주제는 부의 현명한 사용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구원)를 위해 현재의 시간을 단호히 사용하는 것, 또는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음을 참조하라. Jeremias, *Die Gleichnisse Jesu* (1947), 44; R. G. Lunt, “Expounding the Parables: III. The Parable of

문들이 제기된다.⁹⁾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읽는 독자들은 이러한 질문의 바다 한가운데 놓여있는데,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적절한 대답 없이는 이 비유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이 깊이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누가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가, 즉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쿨리오스의 정체를 규명하는 것에 제한할 것이다.

우리말 성서 『개역개정』 누가복음 16장 8절 전반절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로 되어있다. 청지기를 칭찬한 사람은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으로 보도된다. 『새번역』¹⁰⁾이나 『공동번역』¹¹⁾, 또 대다수의 외국어 번역 성서들¹²⁾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주인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 쿨

the Unjust Steward (Luke 16:1-15),” *ExpTim* 77 (1965-1966), 132-133; A. M. Hunter, *The Parables Then and Now* (London: SCM, 1971), 100; 김득중, 『복음서의 비유들』 (서울: 컨콜디아사, 1988), 252, 256-257; F. W. Danker, *Jesus and the New Age: A Commentary on St. Luke’s Gospel* (Philadelphia: Fortress, 1988), 280; C. A. Evans, *Luke*, *New 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Peabody: Hendrickson, 1990), 239; S. A. Ellisen, *Parables in the Eye of the Storm*, (2001), 187.

- 9) 예를 들면, 이 비유 속의 청지기가 긍정적인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면, 도대체 그는 왜 불의하다고 묘사되는가? 주인에게 해고 통지를 받기 이전에 행한 행동이 불의해서인가? 아니면 주인에게 해고 통지를 받은 이후에 행한 행동이 불의해서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가? 그렇다면 또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는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는가? 아니면 의로운 모습으로 묘사되는가? 청지기는 노예인가, 아니면 자유인인가?
- 10)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 11) “그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가 일을 약속빠르게 처리하였기 때문에 **주인**은 오히려 그를 칭찬하였다.”
- 12) 영어 성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NRS, NIV, NAB, NJB, NKJV, ESV, GNB, CEV 등은 κύριος를 master로 번역하였으며, ASV, KJV 등은 lord로 번역하였는데, 머릿글자를 소문자로 표기함으로써 이 단어가 예수가 아니라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임을 밝히고 있다. 다만, 1599년의 제네바

리오스(κύριος)의 일차적인 의미는 소유자로서의 주인(마 20:8, 마 12:9, 눅 20:13 등)인데,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하나님(마 5:33, 마 5:19, 눅 1:6 등)을 가리키거나, 예수(마 3:3, 막 1:3, 눅 3:4, 요 1:23 등)를 가리킨다.¹³⁾ 따라서 문자적으로 누가복음 16장 8절의 퀴리오스는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이 될 수 있지만, 또한 이 비유를 말하는 ‘주님’, 즉 예수가 될 수도 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묻는 문제는 사소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비유의 주인이 칭찬하던 예수가 칭찬하던, 결국은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는다는 데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¹⁴⁾ 하지만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주체를 밝히는 일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해석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¹⁵⁾ 이 문제를 어

성서(GNV)만이 κύριος를 머리글자가 대문자인 Lord로 번역하여, 청지기를 칭찬한 주체가 예수라고 말하고 있다. 독일어 성서들은 κύριος를 Herr로 번역하는데, 독일어의 경우에는 명사의 머리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주인을 가리키는 것인지, 예수를 가리키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 13) 물론 일반적인 신을 가리키는 경우(고전 8:5)도 있고, ‘선생’과 같이 존경을 드러내는 호칭으로 사용되는 경우(행 16:30)도 있으며, 아버지를 가리키는 경우(마 21:30)도 있다.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는 W. Bauer,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6., völlig neu bearbeitete Auflage von Kurt und Barbara Aland (Berlin: Walter de Gruyter, 1988), ‘κύριος’ 항목을 참조하라.
- 14) 데렛(J. E. M. Derrett)은 누가 청지기를 칭찬하였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슈미트(Schmid)와 스타브(Staab)의 견해를 옳다고 인정한다. “Fresh Light on St. Luke’s XVI,” (1961), 198, 각주 3.
- 15) 데렛(J. E. M. Derrett)은 이 비유와 관련한 핵심적인 질문들을 몇 개 기술하면서, 이 비유가 어디서 끝나는지의 문제와 8절 전반절의 퀴리오스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가장 먼저 제시한다. “Fresh Light on St. Luke’s XVI” (1961), 198. 또한 클로펜보그(Kloppenborg)는 이 비유가 그 동안 줄곧 퍼즐과 같았던 이유가 명확하다면서,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로

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비유의 범위가 결정되며, 이것은 또한 비유 전체의 해석에도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의 칭찬과 비유를 말하는 예수의 칭찬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의 칭찬은 누가복음서 독자들에게 청지기를 긍정적인 모델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청지기의 약삭빠름을 비꼬는 것처럼 들리는 주인의 칭찬과는 사뭇 다르다.¹⁶⁾ 또한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진정으로 칭찬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불의한 청지기가 긍정적인 모델로 제시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동시에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마저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예수의 칭찬과는 차이가 있다.¹⁷⁾

제시하는 이유가 바로 8절 퀴리오스의 정체 문제이다. J. S. Kloppenborg, "The Dishonored Master (Luke 16:1-8a)," (1989), 474. 그만큼 이 문제는 이 비유에 얽힌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풀어야 할 첫 매듭이다. 더 나아가 랜드리(D. Landry)와 메이(Ben May)는 그들의 공동 논문에서 이 비유를 해석하는 데 중심이 되는 문제 두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이 비유의 범위에 대한 문제이다. D. Landry, B. May, "Honor Restored: New Light on the Parable of the Prudent Steward (Luke 16:1-8a)," *JBL* 119 (2000), 288.

- 16) 물론 주인의 칭찬도 청지기를 모범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인의 칭찬은 오히려 "그 녀석 약삭 빠르군!"처럼 비꼬는 투의 말로 들린다는 점에서 예수의 칭찬과는 분명히 구분된다. 8절의 칭찬을 청지기의 약삭빠름에 대한 주인의 경탄 정도로 해석하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T. W. Manson, *The Sayings of Jesus: As Recorded in the Gospels according to St. Matthew and St. Luke* (London: SCM, 1949), 292; D. O. Via, *The Parables* (1967), 159-161; J. D. Crossan, *In Parables* (1992), 106-108; A. Hultgren, *The Parable of Jesus* (2000), 147; B. B. Scott, 『예수의 비유 새로 듣기』 김기석 옮김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6), 152-153. 여기서 청지기는 사기꾼으로 해석된다; 또한 S. A. Ellisen, *Parables in the Eye of the Storm* (2001), 187; C. L. Blomberg, "A Social-scientific Perspective on the Parable of the 'Unjust' Steward," (2004), 84를 보라. 우리말 성서 가운데는 『공동번역 성서』가 이러한 인상을 준다.
- 17) 도나휴(J. R. Donahue)는 이 비유의 주인을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이

위에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8절의 퀴리오스가 비유에 등장하는 청지기의 주인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가리키는 것인지를 문제는 이 비유의 범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¹⁸⁾ 8절의 퀴리오스가 청지기의 주인을 가리킨다면, 8절 전반절은 예수의 비유의 일부 분이어야 한다. 비유의 등장인물이 8절에까지 등장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퀴리오스가 예수를 가리키는 주님이라면, 예수의 비유는 7절로 끝나며, 8절 이하는 예수의 적용에 대한 누가의 보도가 된다. 그렇다면 8절의 퀴리오는 비유를 말하는 예수를 가리키는가?¹⁹⁾ 아니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을 가리키는가?²⁰⁾ 물론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를 다루었다. 이들은 나름대로의 근거들을 제시하며 주인이나 주님 가운데 하나를 택하였다. 이제 제 3의 해결책은 없는 것

비유와 소위 ‘탕자의 비유’(15:11-32)의 유사성을 설명하면서,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기꺼이 다시 받아주는 것처럼, 이 비유에서는 기꺼이 받아주는 주인의 모습을 부각시킨다. J. R. Donahue, *The Gospel in Parable* (1988), 163, 167-169. 주인의 자비로운 모습을 강조하는 그의 해석에서는 8절에서 청지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1절의 주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18) A. Hultren, *The Parable of Jesus* (2000), 146.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유의 범위가 먼저 전제되고 나서 8절의 퀴리오스의 정체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퀴리오스의 정체를 근거로 하여 비유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 19) 아래의 학자들은 8절의 퀴리오스가 주님, 즉 예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다. J. Jeremias, *Die Gleichnisse Jesu* (1947), 42; E. E. Ellis, *The Gospel of Luke,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66), 199; A. M. Hunter, *The Parables Then and Now* (1971), 100-101; W. Wiefel, *Das Evangelium nach Lukas* (1988), 294.
- 20) 위의 각주에서 언급된 학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학자들은 8절의 퀴리오스가 비유의 주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다. 대표적으로 D. O. Via, *The Parables* (1967), 156-157; B. B. Scott, *Hear Then the Parable* (1989), 256-258; J.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1985), 1101; D. M. Parrott, “The Dishonest Steward (Luke 16:1-8a) and Luke’s Special Parable Collection,” (1991), 502 등이 있다.

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의 퀴리오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아직도 이 논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8절의 퀴리오스의 정체와 관련하여 각 견해가 내세우는 근거들과 그것들의 약점들을 지적하고, 더 나아가서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논거들을 제시하고 논증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누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단어를 사용하였는지를 조명하고, 더 나아가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지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주인이 칭찬하였다

오늘날 대다수의 번역 성서에는 누가복음 16장 8절의 퀴리오스가 주인으로 번역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주석가들도 이러한 해석을 선호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2.1. 비유에 나타나는 ‘퀴리오스’(3절, 5절, 8절)의 일관적 적용

누가복음 16장 8절의 퀴리오스를 주인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 가운데 하나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일관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유의 3절과 5절에서 퀴리오스가 이미 주인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8절에서도 주인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²¹⁾ 이러한 주장에는 세 가지

21) D. O. Via, *The Parables* (1967), 156; B. B. Scott, “A Master’s Praise: Luke 16:1-8a,” *Bib* 64 (1983), 175; R. H. Stein, 『비유해석학』 (서울: 엠마오, 1988), 179-180; 김득중, 『복음서의 비유들』 (1988), 253; D. J. Ireland, *Stewardship and Kingdom of God: A Historical, Exegetical and Contextual Study of the Parable of the Unjust Stewardship in Luke 16:1-13* (Leiden: Brill, 1992), 61-62; H. J. B. Combrink, “A Social-scientific Perspective on the Parable of the ‘Unjust’ Steward,” (1996), 293; 최갑중, 『예수님의 비유』 (2001), 244-245.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다.

먼저, 3절과 5절의 퀴리오스가 주인을 가리킨다고 해서 8절의 퀴리오스도 꼭 주인을 가리켜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칠십인역(LXX) 시편을 보면, 한 문장 안에서도 퀴리오스가 각기 다른 대상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바로 시편 110편 1절이다. “주님께서 내 주인에게 말씀하셨다.”(εἶπεν ὁ κύριος τῷ κυρίῳ μου). 첫 번째 퀴리오스는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을 가리키며, 두 번째 퀴리오스는 이스라엘의 군주를 가리킨다.²²⁾ 이 문장은 신약에도 인용되어 있다(마 22:44, 막 12:36, 눅 20:42).²³⁾ 또한 로마서 14장 4절을 예외 들을 수도 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중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τῷ ἰδίῳ κυρίῳ)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ὁ κύριος)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도 주인을 의미하는 퀴리오스와 주님을 의미하는 퀴리오스가 함께 나온다. 이 외에 또한 누가복음 12장 42절²⁴⁾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다. “주님(ὁ κύριος)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주인(ὁ κύριος)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 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첫 번째 퀴리오스는 예수를 가리키며, 두 번째 퀴리오스는

22) M. Dahood, *Psalms III: 101-150*,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70), 113.

23) 세 복음서에는 다소 다른 형태로 칠십인역 본문이 인용되어 있는데, 세 복음서 모두 첫 번째 퀴리오스 앞에 관사가 없다. 하지만 일부 고대사본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본들에는 첫 번째 퀴리오스 앞에 관사가 붙어있다. 이것은 칠십인역에 관사가 있는 것에 기인하는 이문이다. 초기 필사자들은 신약에 인용된 구약 본문이 칠십인역과 다른 경우, 이것을 칠십인역에 동화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24) “καὶ εἶπεν ὁ κύριος· τίς ἄρα ἐστὶν ὁ πιστὸς οἰκονόμος ὁ φρόνιμος, ὃν καταστήσει ὁ κύριος ἐπὶ τῆς θεραπείας αὐτοῦ τοῦ δίδοναι ἐν καιρῷ [τὸ] σιτομέτριον;”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을 가리킨다. 더군다나 12장 36절과 37절에 주인을 의미하는 퀴리오스가 두 번 나온 뒤에, 41절과 42절에서 예수를 가리키는 퀴리오스가 두 번 나오고, 다시 42절 하반절부터 주인을 의미하는 퀴리오스가 연속으로 나온다.

둘째, 누가복음 16장 3절(ὁ κύριός μου)과 5절(τοῦ κυρίου ἑαυτοῦ)에서 주인을 의미하는 퀴리오스에는 이 명사를 한정하는 대명사가 속격 형태로 덧붙여 있지만, 8절(ὁ κύριος)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누가복음에서, 8절처럼 퀴리오스가 아무런 수식 없이 ‘절대형’(ὁ κύριος)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의미한다.²⁵⁾

마지막으로 이 주장은 8절도 예수의 비유에 속하는 것으로 전제한다. 하지만 이것은 방법론적으로 잘못된 전제이다. 8절의 퀴리오스가 비유에서 청지기를 고용한 주인인지 아니면 예수인지에 따라 이 비유가 7절까지인지, 아니면 그 이후까지 계속 되는지를 결정해야지, 거꾸로 이 비유의 범위를 먼저 결정하고 나서, 이에 따라 8절의 퀴리오스가 주인인지 주님인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방법론적인 오류이다.²⁶⁾ 아니면, 적어도 다른 근거들을 제시하여 이 비유가 8절에도 계속 되고 있음을 먼저 논증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이 비유가 7절에서 끝나며, 8절 이하는 이 비유에 대한 예수의 적용이라고 할 때, 8절의 퀴리오스는 ‘주님’이 된다.

25) Jeremias, *Die Gleichnisse Jesu* (1947), 42.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논할 것이다. ‘3.2. 호 퀴리오스의 절대적 용법’을 보라.

26) 예를 들면, 아르트(W. F. Arndt)는 8절에서도 예수가 계속 화자이므로, 즉 예수의 비유가 8절에도 이어지므로, 8절의 퀴리오스는 주인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8절의 퀴리오스가 예수를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가 7절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의 비유는 8절에도 이어진다고 비판한다. W. F. Arndt, *Luke*, Concordia Classic Commentary Series (St. Louis: Concordia, 1956), 356.

2.1. 8절과 9절 사이의 간격

누가복음 16장 8절의 퀴리오스를 주인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의 두 번째 근거는 8절과 9절 사이에 무시할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8절은 여전히 예수의 비유의 일부라는 것이다. 9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에서 주어와 갑작스럽게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뀌고 있으며,²⁷⁾ 이와 더불어 8절은 간접화법으로, 9절은 직접화법으로 되어있다는 것이다.²⁸⁾ 이것들을 고려할 때, 8절까지는 비유가 계속되는 것이며, 따라서 8절 전반절의 퀴리오스는 비유에서 언급된 청지기의 주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세 가지 있다. 먼저 인칭의 변화를 살펴보겠다. 이 비유와 비슷한 구조를 보이는 비유가 18장 1절 이하에 보도되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이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는 5절에서 끝나며, 6절은 예수의 적용인데 3인칭으로 묘사되어 있다(“예수께서 말씀하셨다.”). 3인칭이 8절에서 갑작스럽게 1인칭으로 바뀌는 것이 여기서도 뚜렷하게 목격된다. 따라서 인칭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근거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8절까지 계속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둘째, 간접 화법(8절)이 직접 화법(9절)으로 갑작스럽게 변하는 것은 누가의 문서에 간혹 나타나는 현상이며(눅 5:14, 행 1:4; 14:22; 17:3; 23:22; 25:4-5),²⁹⁾ 따라서 이러한 급작스러운 화법의 변화를

27) D. Fletcher, “The Riddle of the Unjust Steward,” (1963), 16-17; R. H. Stein, 『비유해석학』 (1988), 180; 김득중, 『복음서의 비유들』 (1988), 253; M. G. Steinhauser, “Noah in his Generation: An Allusion in Luke 18:8b, ‘εἰς τὴν γενεάν τὴν ἑαυτῶν,’” ZNW 79 (1988), 154; B. B. Scott, *Hear Then the Parable* (1989), 258; D. J. Ireland, *Stewardship and Kingdom of God* (1992), 63; 최갑중, 『예수님의 비유』 (2001), 245.

28) R. H. Stein, 『비유해석학』 (1988), 180.

근거로 8절의 퀴리오스가 주인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³⁰⁾ 누가복음 5장 14절³¹⁾에서처럼, 16장 8-9절도 급작스러운 화법의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히려 8절은 간접화법으로, 9절은 직접화법으로 표현된 대사라면, 8-9절은 한 인물의 대사이며, 결과적으로 8절 전반절의 퀴리오스는 예수를 가리키게 된다.

셋째,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기 때문이다.”라는 8절 후반절은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의 대사로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것은 비유의 일부가 아니며, 비유에 대한 적용 부분이다. 즉, 비유가 8절에서 끝나며, 9절부터 비유에 대한 적용이 시작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다. 이미 8절부터 적용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2.3. 비유의 결론으로서의 8절

누가복음 16장 8절의 퀴리오스를 주인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의 세 번째 근거는, 8절의 퀴리오스가 예수를 가리킨다면, 이 비유는 7절에서 끝나게 되는데, 이 경우 비유의 결론이 없다는 것이다.³²⁾ 필

29) 간접화법과 직접화법이 섞인 구조에 대해서는 Blass, Debrunner and Rehkopf, *Grammatik des Neutestamentlichen Griechisch*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¹⁸2001), § 470을 보라. 누가 이외의 문서에서는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막 6:8-9, 롬 15:3; 고전 1:31).

30) I. H. Marshall, “Luke xvi. 8 - Who Commended the Unjust Steward?” *JTS* 19 (1968), 617-618.

31) καὶ αὐτὸς παρήγγειλεν αὐτῷ μηδενὶ εἰπεῖν, ἀλλὰ ἀπελθὼν δεῖξον σεαυτὸν τῷ ἱερεῖ καὶ προσένεγκε περὶ τοῦ καθαρισμοῦ σου καθὼς προσέταξεν Μωϋσῆς, εἰς μαρτύριον αὐτοῖς. - (예수께서) 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으라.”(사역) 여기서 간접화법으로 시작된 문장이 갑작스럽게 직접화법으로 바뀌고 있다.

32) D. O. Via, *The Parables* (1967), 156; L. J. Topel, “On the Injustice of

자의 판단으로는 이것이 이 주장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논거로 보이며, 아직까지 이 주장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소위 ‘결론이 없는’ 비유들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또 발견할 수 있다.³³⁾ 가령,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눅 13:6-9)에도 적절한 결론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³⁴⁾ 이 비유

the Unjust Steward,” (1975), 218-219; K. E. Bailey, *Poet and Peasant and Through Peasant Eyes* (1983), 104; R. H. Stein, 『비유해석학』 (1988), 180; 김득중, 『복음서의 비유들』 (1988), 253; B. B. Scott, *Hear Then the Parable* (1989), 257; J. S. Kloppenborg, “The Dishonored Master,” (1989), 477; D. J. Ireland, *Stewardship and Kingdom of God* (1992), 64-65; H. J. B. Combrink, “A Social-scientific Perspective on the Parable of the ‘Unjust’ Steward,” (1996), 293; A. Hultgren, *The Parable of Jesus* (2000), 148; D. Landry and B. May, “Honor Restored,” (2000), 288; F. Bovon, *Das Evangelium nach Lukas* (2001), 72, 각주 10; 최갑중, 『예수님의 비유』 (2001), 245.

33) 쇼트로프(L. Schottroff)는 결말이 결정되지 않고 끝나는 비유들이 있다고 말하며, 그 예로 누가복음 15장 32절을 들지만,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없다. L. Schottroff, *The Parables of Jesus* (2006), 246. 각주 5. 한편 도나휴(J. R. Donahue)는 이 비유가 8절 전반절까지 이어진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8절 전반절이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라고 전제하며, 결론은 열려 있다고 한다(‘open-ended’). J. R. Donahue, *The Gospel in Parable* (1988), 167.

34) 6절이 발단이라면, 7절은 전개이며, 8-9절은 절정에 해당한다. 스타인(R. H. Stein)의 지적처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8절 없이는 비유가 부자 주인이 문제를 지닌 그 청지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 아무 대답도 주지 않은 채 흐지부지 끝나는 것이 되고 만다면 『비유해석학』 (1988), 180),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비유’에서도 포도원 주인이 그 무화과나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 아무 대답도 주지 않은 채 흐지부지 끝나는 것이 되고 만다고 할 수 있다. 독자들은 ‘그래서 주인이 그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지 않았다.’라든지, ‘그 무화과나무가 이듬해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자 찍어버렸다.’라든지, 또는 ‘그 이듬해에도 다시 기회를 주었다.’라든지, 아니면, ‘포도원지기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렸다.’와 같은 결론이 예상되지만,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는 회개의 주제(눅 13:1-5)에 바로 뒤이어 보도되는 비유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망할 것인데(5절), 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도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비유는 심판을 연기해 달하는 포도원지기의 탄원으로 끝나고 있다. 독자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 그 무화과나무가 심판을 받았는지, 아니면 심판을 연기 받았는지 알지 못한다. 따라서 최종적인 결론이 이 비유에서 생략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더 비슷한 경우는 ‘큰 잔치의 비유’(눅 14:15-24)이다. 이 비유의 결론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라는 24절의 보도이다. 『새번역』을 보면, 이 말은 따옴표 안에 들어있어서, 주인이 종에게 하는 말로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24절은 주인의 진술이라기보다는 예수의 진술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왜냐하면, 비유에서는 주인과 종(단수)이 대화를 하는데, 24절에서 ‘나’는 ‘너희’(복수)에게 말을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너희’는 비유에 나오는 종(단수)이 아니라,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복수), 즉, 15절의 “함께 먹고 있던 사람들”(복수)이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16절 하반절에서 시작하여 23절 까지 계속되며, 24절은 이 비유에 대한 예수의 적용이 된다. 그러므로 24절은 비유에 속하는 부분이 아니다. 그렇다면, ‘큰 잔치의 비유’는 결론이 없이 끝나며, 예수의 적용(24절)이 비유의 결론을 대신한다고 할 수 있다.³⁵⁾ 이와 마찬가지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눅 16:1이하)에서도 예수의 적용(8절)이 비유의 결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다.

35) 23절도 비유의 결론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내 집을 채우라.”는 주인의 말은 이미 21절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즉, 주인의 집을 채우는 이야기는 21-23절의 공통적인 내용인데, 이것은 청지기가 자기 주인에게 빛진 자들의 빛을 탐감하는 내용(16:5-7)과 병행하는 단락이다.

3. 예수께서 칭찬하셨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8절 전반절의 퀴리오스를 주인으로 해석하려는 주장이 더 우세하지만, 이것을 주님으로 해석하려는 학자들도 여전히 명맥을 잇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 중요한 근거들을 살펴보고, 그 논지를 확장하도록 하겠다.

3.1. 문맥의 문제

3.1.1. 문맥상 주인의 칭찬은 부적절

16장 8절의 퀴리오스가 예수를 가리킨다는 주장의 가장 일반적인 근거는 전체적인 문맥이다.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고(1절), 또 다시 자신을 속인(5-7절) 청지기,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두 번씩이나 손실을 입힌 청지기를 그 주인이 도저히 칭찬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주장의 핵심이다.³⁶⁾ 이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주인의 칭찬이 의외인 것처럼, 예수의 칭찬도 의외라는 것이다.³⁷⁾ 8절의 퀴리오스가 예수를 가리킨다고 해서 의외성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주인의 칭찬과 예수의

36) Jeremias, *Die Gleichnisse Jesu*, 42; R. Bultmann, *The History of the Synoptic Tradition* (Peabody: Hendrickson, 1963), 175-176; A. M. Hunter, *The Parables Then and Now* (1971), 100-101; J. D. Crossan, *In Parables*, (1992), 107.

37) Ireland, *Stewardship and Kingdom of God* (1992), 63. 그는 주인의 칭찬이 단순히 의외라는 사실 때문에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서 주인의 칭찬이 사실은 주의를 사로잡기 위해 의도된 것이라고 한다.

칭찬이 모두 뜻밖의 결과라고는 해도, 그 성격에는 차이가 있다. 8절 전반절이 비유에 속하고, 따라서 불의한 칭지기를 칭찬한 주체가 주인이라고 할 때, 주인의 칭찬은 비유 자체의 논리적 흐름을 끊기 때문에 의외인 반면에, 8절 전반절이 예수의 적용이라고 할 때, 그 칭찬은 예수의 가르침이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의미에서 의외이다. 그런데 예수의 가르침은 원래 의외성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³⁸⁾ 따라서 첫 번째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 비판은, 물론 주인이 불의한 칭지기를 칭찬하는 것이 의외의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 의외성이 바로 비유의 핵심이라는 것이다.³⁹⁾ 그러나 이 경우, 예수의 칭찬이라고 해도 의외성이라는 주제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비판은 결코 8절의 퀴리오스가 주님일 수 없다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38)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모임인 예수 세미나(Jesus Seminar)는 예수를 ‘유대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를 전복’한 지혜 교사로 본다. 정승우, 『예수, 역사가 신화인가』 (서울: 책세상, 2005), 40. 예수 세미나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인 마커스 보그(Markus J. Borg)는 예수를 인습적인 지혜에 도전한 현자, 유대 사회 갱신 운동의 창시자, 당대의 사회적 질서를 비판한 비종말적 예언자의 모습으로 묘사한다. M. J. Borg, 『예수 새로 보기: 영, 문화, 제자됨』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112-274를 보라. 물론 예수를 전복적인 지혜 교사로 보지 않고 기적 수행자나 종말론적 예언자의 모습으로 해석하려고 할 때조차도 예수의 메시지의 과격한 성격을 부정할 수는 없다. 역사적 예수의 모습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이 보도하는 모습에도 이러한 요소는 쉽게 발견된다. 이것은 예수의 행동이나 가르침에 대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포함한 청중들의 ‘불쾌한’ 반응에서도 알 수 있다(눅 5:21; 7:36-39 등).

39) 플레처(D. Fletcher)는 8절 전반절의 퀴리오스가 누구를 가리키든지 간에, 퀴리오스의 칭찬은 놀라운 일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칭찬은 아이러니이며, 경멸의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D. R. Fletcher, “The Riddle of the Unjust Steward,” (1963), 28; 또한 클로펜보그(J. S. Kloppenborg)도 주인은 사회적 기대를 뛰어 넘어 복수를 포기한다고 지적한다. J. S. Kloppenborg, “The Dishonored Master,” (1989), 492.

세 번째 비관은 비유의 해석학적 문제인데, 주인의 칭찬이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다.⁴⁰⁾ 분명히 이것은 이야기의 흐름 때문에 8절 전반절의 퀴리오스가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이 된다. 그러나 이 비관은 근본적으로 바로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수가 칭찬한다고 해서 그 주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퀴리오스의 정체를 추적하는 본 논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 더군다나 이 비관은 칭지기의 조치(5-7절)가 윤리적이라는 전제 하에서만 성립된다는 약점이 있다.⁴¹⁾

3.1.2. 문맥상 주인은 칭지기의 조치를 알지 못함

문맥과 관련하여 8절 전반절의 퀴리오스를 예수로 추정하는 또한 가지 근거는, 5-7절에 보도되는 칭지기의 조치를 비유의 주인이 알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누군가가 칭지기의 조치를 주인에게 알렸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 비유 이야기가 성립되려면 주인이 칭지기의 행동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⁴²⁾ 왜냐하면, 주인이 칭지기의 행위를 알게 된다면, 칭지기의 모든 노력은

40) 대표적으로 데렛(J. D. M Derret)과 피츠마이어(J. Fitzmyer)를 들 수 있다. 칭지기의 행동이 윤리적이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을 만하다는 것이다. J. D. M. Derrett, "Fresh Light on St. Luke's XVI," (1961), 198-219; J.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1985), 1098.

41) 칭지기의 조치가 윤리적인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여기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8절에서 칭지기를 '불의'하다고 규정하는 누가의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다. 더군다나 이 주장에 따르면, 8절의 슬기로운 조치가 윤리적인 행동(5-7절)을 가리켜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윤리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누가의 의도에 맞지 않는다.

42) 김창락, 『귀로 보는 비유의 세계』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7), 261, 264.

허사가 되며, 그러면 청지기는 결코 영리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비유의 모든 세세한 전후 문맥이 완벽하게 일치해야 하며, 모든 세부 사항이 비유 안에 소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약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8절의 퀴리오스가 반드시 예수를 가리켜야 한다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8절 전반절의 퀴리오스가 예수를 가리킬 때, 전체 이야기의 흐름이 끊기지 않음을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결론적으로 문맥만을 볼 때, 8절 전반절의 퀴리오스가 주인을 가리키는지 예수를 가리키는지 명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주인보다는 예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때, 이야기의 흐름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에서 본 것처럼, 문맥상 8절의 퀴리오스가 주인을 가리킨다는 견해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이 결코 결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이다.

3.2. ‘호 퀴리오스’의 절대적 용법

8절의 퀴리오스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를 가리킨다는 근거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에서 ‘호 퀴리오스’(ὁ κύριος)가 절대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예수를 가리킨다는 것이다.⁴³⁾ 또한 누가복음 18장 6절과의 유비를 그 근거로 들 수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이후에 18장 6절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퀴리오스가 분명히 예수를 가리키며, 예수가 비유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므로, 16장 8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유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예수라는 것이다.⁴⁴⁾

43) J. Jeremias, *Die Gleichnisse Jesu* (1947), 42. 그는 누가복음에서 ὁ κύριος가 한 번만 하나님을 가리키고, 세 번의 예외(12:37, 42b; 14:23)를 제외하면, 18번이나 예수를 가리킨다고 지적한다.

이 견해를 반대하는 학자들은 퀴리오스가 절대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예수가 아니라 주인을 가리키는 예외가 있음을 지적한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주장은, 누가복음의 비유 단락들에서만 볼 때, 절대형으로 사용된 퀴리오스가 세 번(12:37, 42하; 14:23)은 주인을 가리키며, 예수를 가리키는 경우는 두 번(12:42; 18:6) 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8절의 퀴리오스도 오히려 주인을 가리킬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다.⁴⁵⁾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이 비판은 누가복음 16장 8절 전반절이 비유에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전제한다. 하지만 8절 전반절이 비유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는 결정적으로 8절의 퀴리오스가 비유의 주인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예수를 가리키는지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지, 거꾸로 비유의 범위가 먼저 설정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비유 안에 나타나는 퀴리오스는 일반적으로 누가의 저작이라기보다는 전승에서 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즉, 누가가 퀴리오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판단하려면, 각 경우의 퀴리오스가 전승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누가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인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된 세 군데(12:37, 42하; 14:23)의 예외는 누가가 전승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들이다.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누가문서에는 230번이나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사도행전을 제외하고 누가복음만 보더라도 108번이나 된다. 물론 ‘주인’과

44) J. Jeremias, *Die Gleichnisse Jesu* (1947), 42. 그는 이 외에도 18장 8절과 16장 9절이 매우 비슷하며, 각각의 비유에서 주인공이 ‘악’이라는 명사의 속격(τῆς ἀδικίας)으로 수식되고 있는 것도 비슷하다고 주장한다.

45) K. E. Bailey, *Poet and Peasant and Through Peasant Eyes* (1983), 103-104, 또한 각주 71을 보라.

‘주님’을 포함하여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누가가 사용한 모든 용례를 일일이 다 다룰 수는 없다. 다만 누가복음에서 퀴리오스가 주인의 의미로 나타나는 단락들과 예수를 가리키는 단락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누가복음에서 퀴리오스가 주인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부가어의 수식이 속격 형태로 첨부된다. “추수의 주인”(10:2, τοῦ κυρίου τοῦ θερισμοῦ), “그들의 주인”(12:36, τὸν κύριον ἑαυτῶν), “중의 주인”(12:46, ὁ κύριος τοῦ δούλου), “그것(나귀)의 주인”(19:33, οἱ κύριοι αὐτοῦ), “포도원 주인”(20:13, 15, ὁ κύριος τοῦ ἀμπελώνου)과 같은 형태로 사용된다. 퀴리오스가 주인을 가리키는 경우, 호격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퀴리오스가 일반적으로 속격 부가어의 수식을 받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세 번의 예외가 있다(12:37, 42하, 14:23). 그런데 이 세 경우의 공통점은 이것들이 누가의 창작이 아니라, 전승에서 비롯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42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누가복음 12장 42하-46절의 비유 해설은 Q자료에 속하는 것인데(마 25:45-51을 보라), 42절 전반절은 비유 해설의 도입 부분으로 누가의 저작이며, 47절과 48절은 누가의 특수 자료이거나 저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42절 후반절의 ‘호 퀴리오스’는 누가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Q에서 온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누가의 편집 부분에 속하는 42절 전반절에도 퀴리오스가 절대적 용법으로 나타나는데, 이때는 명백하게 예수를 가리킨다. 이제 누가가 예수를 의식하고 퀴리오스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누가는 예수를 가리킬 때, ‘(호) 퀴리오스’를 절대적 용법으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마태와 마가는 오직 한 단락에서만 예수를 ‘호 퀴리오스’라는 절대적 용법으로 소개한다(막 11:3=마 21:3). 반

면에 누가는 이 용법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데(눅 7:13; 10:1, 39, 41; 11:39, 12:42상; 13:15, 17:5, 6; 18:6; 19:8),⁴⁶⁾ 거의 대부분이 누가의 편집 또는 창작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들이다. 물론 예외도 있다. 누가복음 20장 42절에서는 두 번째 퀴리오스가 명백하게 예수를 가리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μου)라는 인칭대명사가 속격으로 첨부되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구약의 본문(시 110:1, LXX)이 칠십인역에서 문자적으로 인용된 것⁴⁷⁾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누가는 자신의 편집 부분에서 예수를 절대적 용법의 ‘(호) 퀴리오스’로 부르는 경향을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16장 8절의 퀴리오스가 예수를 가리킨다는 결정적인 근거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8절 전반절이 비유에 속하는 부분이라면 결과는 또 뒤바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누가 문서에서 퀴리오스가 절대적 용법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주인보다는 예수를 가리키는 경우가 더 많음을 인식할 수 있다.⁴⁸⁾

46) 이러한 경향은 사도행전에도 여러 차례 나타난다(행 5:14; 9:10, 11, 42; 11:23, 24, 22:10b). ‘주 그리스도’(ὁ κύριος Χριστός, 눅 2:11)나 ‘주 예수’(ὁ κύριος Ἰησοῦς, 행 1:21; 4:33; 8:16; 11:20; 15:11; 16:31; 19:5, 13, 17; 20:24, 35; 21:13), ‘주 예수 그리스도’(ὁ κύριος Ἰησοῦς Χριστός, 행 11:17; 28:31)도 마찬가지로 절대적 용법으로 사용된다. 물론 ‘우리’라는 수식어가 덧붙여져서 ‘우리 주 예수’(τὸν κύριον ἡμῶν Ἰησοῦν, 행 20:21)라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τοῦ κυρίου ἡμῶν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행 15:26)라는 제의적인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사도행전에 나타나기도 한다.

47) 물론 마가가 칠십인역의 본문을 인용하였으며, 누가는 마가의 본문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다.

48) 누가복음서보다 약 30년 이른 로마서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다. 로마서 14장 4절을 보면, 퀴리오스가 두 번 나타나는데, 한 번은 “주인”을, 다른 한 번은 “주님”을 가리킨다. 그런데 주인을 가리키는 첫 번째 퀴리오스(τῷ ἰδίῳ κυρίῳ)는 한정을 받는데 반해, 주님을 가리키는 두 번째 퀴리오스(ὁ

3.3. 8절 전반절과 8절 후반절의 관계

위에서 제시한 어떤 근거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8절 전반절⁴⁹⁾과 후반절⁵⁰⁾의 관계이다. 누가는 복음서를 저술하면서 몇 가지 문서 자료들을 편집하였다.⁵¹⁾ 이 과정에서 부분적으로는 누가 이전의 자료들이 복음서에 그대로 반영되었을 것이고, 또 일부분은 누가 수정하였을 것이며, 또 어떤 부분은 누가 직접 작성하였을 것이다. 만약 예수 비유의 원형을 찾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면, 우리는 전승을 역(逆) 추적하여 각 전승 층을 구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과제가 역사적 예수의 비유의 원형을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8절의 퀴리오스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라면, 무엇보다도 누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문맥, 누가 편집한 최종 형태에서 퀴리오스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고려해야 한다.

접속사 ‘호티(ὅτι)’로 시작되는 8절 후반절은 의미상 8절 전반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후반절을 이끄는 이 접속사의 기능이 전

κύριος)는 절대적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 49) 불의한 청지기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에 퀴리오스가 그를 칭찬하였다 (καὶ ἐπήνεσεν ὁ κύριος τὸν οἰκονόμον τῆς ἀδικίας ὅτι φρονίμως ἐποίησεν).
- 50) 왜냐하면 이 세대에서는 세상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기 때문이다(ὅτι οἱ υἱοὶ τοῦ αἰῶνος τούτου φρονιμώτεροι ὑπὲρ τοὺς υἱοὺς τοῦ φωτὸς εἰς τὴν γενεάν τὴν αὐτῶν εἰσιν.). 이 문장은 아래처럼 해석할 수도 있다. “이 세대에서는 세상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 51) 단순히 마가복음과 Q자료와 누가 특수 자료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복음서의 자료에 대한 개론적인 설명은 H. Conzelmann and A. Lindemann, *Arbeitsbuch zum Neuen Testament* (Tübingen: J. C. B. Mohr, ¹²1998), 64-81을 참조하라.

반절의 보도에 대한 이유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8절 전반절의 주어(퀴리오스)의 직접 인용문을 이끌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8절 후반절이 전반절에 대한 이유를 드러내는 경우라면,⁵²⁾ 8절 후반절은 어떻게 불의한 청지기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준다. 이 시대에서는 불의한 청지기가 속한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다른 한편, 8절 후반절이 직접 인용문이라면,⁵³⁾ 8절 후반절 이하(적어도 8하-13절)는 8절 전반절의 주어인 퀴리오스의 대사가 된다. 이럴 경우에 8절 전반절의 주어는 예수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둘 가운데 어느 경우이든, 누가복음의 최종 형태에서 8절 후반절은 의미상 8절 전반절과 동떨어진 문장일 수는 없다.⁵⁴⁾ 그런데 어둠의 자녀들과 빛의 자녀들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는 8절 후반절은 비유 주인의 대사로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⁵⁵⁾ 이 구절은 비유 자

52) L. Schottroff, *The Parables of Jesus* (2006), 160. 또한 우리말 『개역개정』이 이러한 의미로 번역되었으며, 『새번역』과 『공동번역』에는 접속사 호티(ὅτι)가 적극적으로 번역되지 않았다. ASV, ESV, NRSV, KJV, NIV 등 대다수의 외국어 성서들도 이 접속사를 원인을 이끄는 접속사로 번역하였다.

53) 독일어 『공동번역』(EIN)은 이것을 직접 인용문을 이끄는 접속사로 번역하였다. “Und der Herr lobte die Klugheit des unehrlichen Verwalters und sagte: Die Kinder dieser Welt sind im Umgang mit ihresgleichen klüger als die Kinder des Lichtes.”[주(또는 주인)가 그 진실하지 못한 청지기의 영리함을 칭찬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자기네 일을 처리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영리하다.”]

54) 비아(D. O. Via)는 이 비유가 누가에게 전해지기 이전부터 이미 8절 후반절이 8절 전반절에 덧붙여졌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D. O. Via, *The Parables* (1967), 156. 물론 우리의 논의에서는 8절 전반절과 후반절이 이미 매우 이른 시기부터 함께 전승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8절 후반절이 비유 자체에 대한 해석으로 덧붙여진 것이 아니라, 8절 전반절에 대한 설명으로 덧붙여졌다는 사실이다.

55) 일찍이 율리허(A. Jülicher)가 이를 잘 지적하였다. A. Jülicher, *Die Gleichnisreden Jesu*, 503.

체에 속하는 부분이 아니라, 예수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⁵⁶⁾ 따라서 누가의 시각에서 볼 때, 8절 전반절의 퀴리오스는 주인보다는 예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3. 나오는 글

전승사적으로 볼 때, 8절 전반절과 후반절은 각기 독립된 전승을 가졌으며, 누가에 이르러서 ‘슬기로운’(φρονιμῶς)이라는 모티브로 연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9절 이하도 마찬가지로 독립된 전승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8절 전반절은 매우 이른 시기부터 이 비유와 함께 전승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이 논문의 목적은 예수의 비유의 원형이나 역사적 전승 단계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8절의 퀴리오스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다.

8절의 퀴리오스가 주인을 가리키든, 아니면 예수를 가리키든, 두 경우 모두 나름대로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어나 독일어처럼 같은 단어로 주인을 가리킬 수도 있고, 동시에 예수를 가리킬 수도 있으면, 그 단어를 사용하여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하지만 영어나 우리말의 경우에는, 퀴리오스의 대응어로 주인이나 예수(또는 주님)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단락에서의 퀴리오스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는 누가복음서 기자가 8절에서 퀴리오스를 사용하면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를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 물론 복음서 독자가 이 단어를 접하는 순간에, 주인과 예수가 그의 마음 안에 교차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누가는 불의한 청지기

56) 이미 오래 전에 다드(Dodd)는 8절 이하가 비유(1-7절)에 대한 적용이라고 하였다. 각기 다른 세 가지 독립적인 적용이 비유에 덧붙은 것이며, 그 가운데 첫 번째의 것이 바로 8절이라고 하였다. C. H. Dodd, *The Parables of the Kingdom* (1961), 17.

를 칭찬하는 주체로 예수를 지목하고 있다. 예수에 대한 전승들을 수집하고 편집하여 독자적인 복음서를 저술하는 누가는, 예수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16:1-7)를 소개한 뒤에 예수의 입을 빌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말 성서에도 8절의 퀴리오스를 주인보다는 주님 또는 예수로 번역하는 것이 복음서 기자의 의도를 더욱 잘 반영하는 번역이 될 것이다. 하지만 퀴리오스의 모호성을 고려하여 난외주에 이 단어가 주인으로도 해석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퀴리오스를 주인으로 번역할지 주님으로 번역할지 번역 팀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할 때에도, 적어도 난외주를 활용하여,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음을 독자들에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8절에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퀴리오스의 정체가 예수라면, 기존의 몇 가지 주장들은 배제된다. 불의한 청지기가 독자들을 위한 부정적인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거나,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이 이 비유의 주인공이며, 주인의 한없는 자비로움이 이 비유의 주제라는 주장들은 유지될 수 없다. 예수가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함으로써 청지기는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공동체를 위한 긍정적인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후속적인 질문들, 청지기가 왜 칭찬을 받는지, 그러면서도 왜 불의하다고 묘사되는지, 누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였는지, 이 비유와 비유 해설에 어떠한 사회적인 정황이 반영되어 있는지 등과 같은 질문들은 8절의 퀴리오스가 예수라는 토대 위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눅 16:8, 예수의 비유, 퀴리오스, 주님(주인), 청지기, 성서 번역

<Key Words>

Lk 16:8, Parable, Kyrios, Lord(lord), steward, Translation

참고문헌

- 김득중, 『복음서의 비유들』, 서울: 컨콜디아사, 1988.
- 김창락, 『귀로 보는 비유의 세계: 김창락 교수와 함께 비유 읽기』,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7.
- 임인호, “누가복음서의 경제신학,” 『신약논단』 11 (2004), 263-303.
- 정승우, 『예수, 역사인가 신화인가』, 서울: 책세상, 2005.
- 최갑중, 『예수님의 비유: 본문, 해설 그리고 설교/적용』, 서울: 이레서원, 2001.
- Arndt, W. F., *Luke*, Concordia Classic Commentary Series, St. Louis: Concordia, 1956.
- Bailey, K. E., *Poet and Peasant and Through Peasant Eyes. A Literary-Cultural Approach to the Parables in Luke*,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83.
- Bauer, W.,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6., völlig neu bearbeitete Auflage von Kurt und Barbara Aland, Berlin: Walter de Gruyter, 1988.
- Beavis, M. A., “Ancient Slavery as an Interpretive Context for the New Testament Servant Parable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Unjust Steward (Luke 16:1-8),” *JBL* 111 (1992), 37-54.
- Blass, Debrunner, Rehkopf, *Grammatik des Neutestamentlichen Griechisch*,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¹⁸2001.
- Blomberg, C. L., *Preaching the Parables: From Responsible Interpretation to Powerful Proclamati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4.
- Borg, M. J., 『예수 새로 보기: 영, 문화, 제자됨』,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 Bovon, F., *Das Evangelium nach Lukas (Lk 15:1-19:27)*, EKK III/3,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1.
- Bultmann, R., *The History of the Synoptic Tradition*, Peabody: Hendrickson, 1963.

- Combrink, H. J. B., "A Social-scientific Perspective on the Parable of the 'Unjust' Steward (Lk 16:1-8a)," *Neot* 30 (1996), 281-306.
- Conzelmann, H. and Lindemann, A., *Arbeitsbuch zum Neuen Testament*, Tübingen: J. C. B. Mohr, ¹²1998.
- Crossan, J. D., *In Parables: The Challenge of the Historical Jesus*, Sonoma: Polebridge, 1992.
- Danker, F. W., *Jesus and the New Age: A Commentary on St. Luke's Gospel*, Philadelphia: Fortress, 1988.
- Derrett, J. D. M., "Fresh Light on St. Luke's XVI: The Parable of the Unjust Steward," *NTS* 7 (1960-1961), 198-219.
- Dodd, C. H., *The Parables of the Kingdom*,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1.
- Donahue, J. R., *The Gospel in Parabl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8.
- Ellis, E. E., *The Gospel of Luke*,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66.
- Ellison, S. A., *Parables in the Eye of the Storm: Christ's Response in the Face of Conflict*, Grand Rapids: Kregel, 2001.
- Evans, C. A., *Luke*, New 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Peabody: Hendrickson, 1990.
- Fitzmyer, J.,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X-XXIV)*,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85.
- Fletcher, D., "The Riddle of the Unjust Steward: Is Irony the Key?" *JBL* 82 (1963), 15-30.
- Ford, R. Q., *The Parables of Jesus: Recovering the Art of Listening*,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7.
- Greene, M. D., "The Parable of the Unjust Steward as Question and Challenge," *ExpTim* 112 (2000), 82-87.
- Herzog, W. R., *Parables as Subversive Speech: Jesus as Pedagogue of the Oppressed*,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4.

- Hultgren, A., *The Parable of Jesus: A Commentary*,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n, 2000.
- Hunter, A. M., *The Parables Then and Now*, London: SCM, 1971.
- Ireland, D. J., “A History of Recent Interpretation of the Parable of the Unjust Steward (Luke 16:1-13),” *WTJ* 51 (1989), 293-318.
- Ireland, D.J., *Stewardship and Kingdom of God: A Historical, Exegetical and Contextual Study of the Parable of the Unjust Stewardship in Luke 16:1-13*, Leiden: Brill, 1992.
- Jeremias, J., *Die Gleichnisse Jesu*,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47, 61962.
- Jülicher, A., *Die Gleichnisreden Jesu*, Freiburg i. B: J. C. B. Mohr, 1899.
- Kistemaker, S. J., *The Parables: Understanding the Stories Jesus Told*, Grand Rapids: Baker Books, 2002.
- Kloppenborg, J. S., “The Dishonored Master (Luke 16:1-8a),” *Bib* 70 (1989), 474-495.
- Landry, D. and May, B., “Honor Restored: New Light on the Parable of the Prudent Steward (Luke 16:1-8a),” *JBL* 119/2 (2000), 287-309.
- Longenecker, R. N., *The Challenge of Jesus’ Parables*, Grand Rapids: Wm. B. Eerdmans, 2000.
- Lunt, R. G., “Expounding the Parables: III. The Parable of the Unjust Steward (Luke 16:1-15),” *ExpTim* 77 (1965-1966), 132-136.
- Manson, T. W., *The Sayings of Jesus: As Recorded in the Gospels according to St. Matthew and St. Luke*, London: SCM, 1949.
- Marshall, I. H., “Luke xvi. 8 - Who Commended the Unjust Steward?” *JTS* 19 (1968), 617-619.
- Merkelbach, R., “Über das Gleichnis von ungerechten Haushalter(Lukas 16,1-13),” *VigChr* 33 (1979), 180-181.
- Parrott, D. M., “The Dishonest Steward (Luke 16:1-8a) and Luke’s

- Special Parable Collection,” *NTS* 37 (1991), 499-515.
- Pellegrini, S., “Ein ‘ungetreuer’ οἰκονόμος (Lk 16,1-9)? Ein Blick in die Zeitgeschichte Jesu,” *BZ* 48 (2004), 161-178.
- Schottroff, L., *The Parables of Jesu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6.
- Schwarz, G., “‘…lobte den betrügerischen Verwalter’? (Lukas 16,8a)” *BZ* 18 (1974), 94-95.
- Scott, B. B., “A Master’s Praise: Luke 16:1-8a,” *Bib* 64 (1983), 173-188.
- Scott, B. B., *Hear Then the Parable: A Commentary on the Parables of Jesu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9.
- Scott, B. B., 『예수의 비유 새로 듣기』 김기석 옮김,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6.
- Stein, R. H., 『비유해석학』, 서울: 엠마오, 1988.
- Steinhauser, M. G., “Noah in his Generation: An Allusion in Luke 18:8b, ‘εἰς τὴν γενεάν τὴν ἑαυτῶν,’” *ZNW* 79 (1988), 152-157.
- Topel, L. J., “On the Injustice of the Unjust Steward,” *CBQ* 37 (1975), 216-227.
- Via, D. O., *The Parables: Their Literary and Existential Dimens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7.
- Wiefel, W., *Das Evangelium nach Lukas*, ThHK 3, Berlin: Evangelische Verlagsanstalt, 1988.

<초록>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이는 누구인가?

민경식

(연세대학교 강사, 신약학)

누가복음 16장 1절 이하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해석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학자들의 논쟁이 대단히 많은 비유로 유명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역사적 예수가 말한 비유의 원형을 재구성하거나, 누가 이전의 전승 단계에서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누가의 관점에서 16장 8절 전반절의 퀴리오스의 정체체를 밝히는 일이다. 즉,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16장 8절의 퀴리오스를 쓰면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가를 묻는 것이다. 주인이었는가, 아니면 예수였는가?

16장 8절의 퀴리오스의 정체체를 밝히는 일은 이 비유 연구의 출발점이 될 뿐만 아니라, 정체 규명의 결과에 따라 비유 해석의 방향이 바뀐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거의) 모든 현대어 번역본들은 16장 8절에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사람이 주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16장 8절의 퀴리오스가 주인을 가리키는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본 연구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를 (재)검토하고, 그 학문적 성과를 (재)평가한다. 각각의 견해가 내세우는 근거들과 그것들의 약점들을 지적하고, 더 나아가서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논거들을 제시하고 논증한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 누가의 관점에서 볼 때, 16장 8절의 퀴리오스는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이 아니라, 비유를

말하는 예수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연구는 제안한다. 따라서 우리말 성경 번역에서 이 단어를 주님으로 번역할 것을 추천한다. 하지만 단어의 모호성을 독자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난외주를 이용하여 문자적으로 이 단어를 주인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 비유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8절의 퀴리오스가 예수를 가리킬 개연성 높다는 바탕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Abstract>

Who Praised the Unrighteous Steward?:

An Inquiry into the Translation of ‘κύριος’ in Luke 16:8a

Dr. Kyoung Shik Min

(Yonsei Univ.)

Many NT commentators affirm that the ‘parable of the unrighteous steward’(Lk 16:1ff) is the most difficult of all the synoptic parables due to the multiplicity and complexity of the problems in its interpretation.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to reconstruct the original form of the parable of historical Jesus, nor to find out the meaning of the parable before it came to Luke, but to investigate the identity of the ‘κύριος’ in Luke 16:8a *from Luke’s perspective*. Whom does Luke suppose to have praised the unrighteous steward - master or Jesus? This question is not a matter of small importance, because most problems of the parable begin with this very

question.

Most modern translations read in Luke 16:8 that it is the *master* who has praised the unjust steward. In these cases, the Greek word, κύριος was understood as the master of the parable. However, it is not entirely clear whether the κύριος of verse 8a refers to the master of the parable or Jesus who is telling it.

This study surveys the recent studies concerning the issue, and evaluates various arguments, either for or against the working hypothesis that ὁ κύριος in Luke 16:8a refers to Jesus. In each case, much emphasis is laid on answering the following question: “who was in Luke’s mind, when he wrote down ‘ὁ κύριος’ in Luke 16:8a?” After the critical survey of recent researches, we reached the conclusion that Luke would have probably pointed at Jesus as the one who praised the unrighteous steward. We therefore suggest that the Korean equivalent of ὁ κύριος in Luke 16:8a could be ‘the Lord’(Chu-nim), not ‘the lord’(Chu-in). Nevertheless it is advisable to use footnotes to inform the readers of the possibility that ὁ κύριος can be interpreted literally as the master of the parable as well. It is also to be desired that future researches into this parable do not exclude, but are carried out on the basis of the probability that ὁ κύριος in Luke 16:8a, at least for Luke himself, refers to Jesus.